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Ⅰ 연수 개요

❍ **연수목적**

- 미국, 캐나다의 문화·관광산업 실태를 비교 견학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목 확대 및 의정 역량 강화
- 해외 우수 시책 및 성공 사례 등을 집중 수집·습득하고 지역 실정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남 22개 시·군 의회 간 소통강화와 공동 발전 및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연수일정** : 2017. 7. 3.(월) ~ 7. 14.(금) / 10박12일

❍ **연수국가** : 미국, 캐나다

❍ **연수인원** : 42명(의장 20, 시군의회 공무원 22)

❍ **출장자 인적사항**

연 번	직 책	성 별	성 명	비 고
1	의장	남	임종기	
2	행정7급	남	장지만	

Ⅱ 연수 일정

월 일	장 소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1일차 (7/3) (월)	동부권,서부권 인 천 로스엔젤레스	OZ204 전용버스	20:40 16:20	• 인천공항 출발 • 로스엔젤레스 공항 도착(약11시간 10분) • 코리아 타운방문 , LA소방서 방문 • LA파머스 마켓 견학 • 석식 후 숙박	아시아나 항공
2일차 (7/4) 화	로스엔젤레스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전용버스	전일	• 호텔 조식 후 • 바스토우 이동 • 라스베가스 관광청 방문 등 • 클릭 가운터 수처리 구역 방문 • 석식 후 숙소 이동	
3일차 (7/5) 수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라플린	전용버스	전일	• 호텔 조식 • 그랜드캐년 이동 •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견학 • 콜로라도 강변 휴양도시 라플린 도시견학 • 석식 후 숙소 이동	
4일차 (7/6) 목	라플린 오트맨 바스토우 로스엔젤레스	전용버스	전일	• 오트맨 마을 이동 • 작은 폐광촌 재생마을 오트맨 방문 도시재생 정책 파악 • 바스토우 이동 후 중식 • 로스엔젤레스 이동 • 석식 후 숙소 이동	
5일차 (7/7) 금	로스엔젤레스 뉴 욕	DL407	07:30 6:00	• 호텔 조식 후 공항 이동 • LA공항 출발~뉴욕 공항 도착(약 6시간 30분 소요) • 석식 후 호텔 투숙	
6일차 (7/8) 토	뉴 욕	전용버스	전일	• 유통현장 견학 – 첼시마켓 방문 • 월스트리트 방문 • 타임스퀘어, 라커펠러 센터 방문 • UN본부 방문 • 석식 후 호텔 투숙	

월 일	장 소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7일차 (7/9) 일	뉴 욕 나이아가라	전용버스	전일	• 호텔 조식 • 중식 후 나이아가라(미국 측) 관리사무소 방문 • 국경 통과 후 캐나다 측 나이아가라 이동 • 나이아가라 테이블 락 전망대 조성 현장 방문 • 아담백경 수력발전소 방문, 식물원 방문 • 석식 후 숙소 이동	
8일차 (7/10) 월	나이아가라 토론토	전용버스	전일	• 나이아가라 폭포 와이너리오 공장 견학 • 중식 후 토론토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 토론토 기관 방문 - 신청사, 구시청, 디스틸러리, 한인타운 주의사당, 토론토 대학 방문 • 석식 후 숙소 이동	
9일차 (7/11) 화	토론토 천 섬 몬트리올	전용버스	전일	• 몬트리올 이동(약 3시간 소요) • 몬트리올 시내 도심 경관 정책 현장 방문 멕길대학교, 몽로얄고원, 성요셉성당, 노틀담 광장, 까르띠에 광장 등 • 석식 후 호텔 투숙	
10일차 (7/12) 수	몬트리올 우두베리 뉴저지	전용버스	전일	• 호텔 조식 후 몬트리올 출발 • 우두버리이동람 • 뉴저지 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11일차 (7/13) 목	뉴저지 뉴욕	OZ221	13:50	• 호텔조식 후 뉴욕 JFK공항 출발 (약 14시간 소요)	
12일차 (7/14) 금	인천 광주	전용버스	17:10 23:00	• 인천 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 광주 도착 해산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Ⅲ 연수 내용

1. 방문국 현황

미 국

국 명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위 치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
면 적	9,826,675㎢(세계 3위-한반도 43배)
기 후	대부분이 온대 또는 냉대에 속함. 5월 평균기온 : 13.7.~24.6℃ / 평균강수량 93mm 서울의 5월보다는 약간 더우며, 기온차가 11도 가량 뚝 떨어진 밤 기온에 대비해 걸칠 수 있는 외투 챙길 것
시 차	미국 동부와 시차는 -13시간 시차
수 도	워싱턴D.C.(600,000명, 2014년 7월 기준)
인 구	323,995,528명/세계 4위 (2016년 4월기준) 인구밀도 : 32명㎢, 출산율 : 59.8명/천명 평균수명 : 남성 76.4세, 여자 81.2세
민 족	백인(80%), 흑인(13.%), 인디언 및 알래스카인(0.97%) 하와이 원주민(0.18%), 다민족(1.61%)
언 어	영어
종 교	개신교(51.3%), 카톨릭교(23.9%), 모르몬교(1.7%) 등
건국(독립)일	1776년 7월 4일
정부형태	연방제, 양원제, 대통령제

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카리브해(海)가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온대 주요부를 차지하며, 50개주(state)와 1개 수도구
(district:컬럼비아구. 약칭 D.C) 외에 해외속령(海外屬領)으로 푸에르토리코·사모아 제도(諸島)·웨이크섬·괌섬이 있다. 캐롤라인 제도는 1947년부터 1986년까지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신탁통치령으로 미국이 관할하였다.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며, 본토 면적만으로는 네번째이다. 인구는 약 3억 1천만명이 거주하며 다양한 민족이 이주하여 정착한 다민족국가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원주민은 아시아대륙에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주하여 정착한 인디언으로 추정되며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로서 유럽 강국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때 유럽에서 전해온 전염병으로 많은 원주민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영국인에 의해 지배되었다가 1775년에 시작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동부에서 서부로 영토가 확장되었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인디언들이 정착지를 잃고 죽임을 당하거나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미국은 내분에 휩싸여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북부군이 승리하면서 진정한 통일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인구유입이 이루어졌고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력의 확장과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20세기 들어 두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구소련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유럽에도 미치게 되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캐 나 다

국 명	캐나다(United States of America)
위 치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
면 적	9,984,670㎢(세계 2위)
기 후	남쪽의 온난한 기후부터, 북쪽의 북극성 기후까지 매우 다양한데, 크게 12기후 구로 나뉜다.
시 차	오타와와 시차는 -13시간 시차
수 도	오타와(812,129명, 2006년 기준)
인 구	35,362,905명/세계 39위 (2016년 7월기준) 인구밀도 : 4명㎢, 출산율 : 1.6명/한명 평균수명 : 81.16세
민 족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계(15%) 아메리카원주민(2%), 다민족(6%), 혼혈(26%)
언 어	영어, 프랑스어
종 교	로마카톨릭교(42.63%), 개신교(23.3%), 기타(6.3%) 등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로서 북아메리카 대륙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면적의 나라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서쪽으로 미국 알래스카주(州), 남쪽으로 미국 12개주에 접하고, 서쪽으로 북태평양, 북쪽으로 북극해, 동쪽으로 대서양·데이비스 해협·배핀만(灣)에 면한다. 서경 144°(알래스카 국경선 근처)에서 동쪽으로 배핀 제도(諸島)까지의 북극해상 섬들이 캐나다에 속해 있다. 행정구역은 10개주(province), 3개 준주(準州:territory)로 이루어진다. 국명은 수천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캐나다 인디언의 후예인 휴런-이로쿼이(Huron-Iroquois)족의 언어로 '마을','정착지'를 뜻하는 '카나타(kanata)'에서 생겨났다. 15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를 탐험하였고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이 동쪽 대서양 해안가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7년 전쟁을 벌여 캐나다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1763년 프랑스가 패배하여 캐나다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캐나다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0세기경 노르만인(人)에 의해서이며, 14세기 전반까지는 덴마크인이 거주하였으나 그후 소멸하였다. 1497년 영국 국왕 헨리 7세의 명을 받은 이탈리아인 지오반니 카보토가 뉴펀들랜드 등 캐나다 동해안을 탐험하였다. 당시 캐나다에는 소수의 인디언이 살고 있었으며, 실제 캐나다라는 지명은 인디언 이로코이족(族)의 말에 있는 카나타(Kanata:부락이라는 뜻)가 어원(語源)이라고한다.

캐나다에 대한 영국인의 진출은 1628년 노바스코샤 식민지의 설립과 동시에 본격화하였으며, 그뒤 150년간 뉴펀들랜드,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섬, 허드슨만(灣) 지방에 많은 식민지가 만들어졌다. 이들 식민지는 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독립해 있었다.

한편, 프랑스인의 진출은 1608년부터 세인트로렌스강(江) 연안에 퀘벡 · 몬트리올 등의 식민지 설립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들 영국 · 프랑

스 양 식민지간의 투쟁은 유럽의 본국간 항쟁의 반영으로, 1756~1763년의 7년전쟁에서 영국군이 퀘벡·몬트리올을 점령하여 캐나다에서 영국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1763년의 파리조약에서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캐나다에 있는 식민지와 미시시피에서 동쪽의 루이지애나에 이르는 지역을 빼앗았다. 이리하여 캐나다는 완전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놓였으나, 영국은 그 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일어난 독립혁명에서 캐나다를 떼어놓기 위하여 1774년의 퀘벡법(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퀘벡주의 구(舊) 프랑스령 식민지에서 지주와 교회의 특권을 승인하는 대가(代價)로 프랑스계 주민이 미국독립혁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퀘벡지역을 캐나다연방에서 분리독립 시키려는 움직임은 캐나다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구(舊)아메리카 식민지의 제국왕당파(帝國王黨派) 등 보수분자가 아메리카에서 쫓겨나 노바스코샤주(州)·온타리오주 등으로 이주하여 그 지역의 지배층을 형성하였으므로 캐나다 사회의 보수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탄생, 점점 거세어지는 서점(西漸) 운동, 급속한 경제발전 등은 캐나다의 식민지를 고립·분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영국은 미국측의 합병운동을 두려워하여 캐나다 식민지의 정치적 통합에 나서게 되었다. 1867년의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TheBritishNorthAmericaAct:BNAACT)’에 따라 캐나다는 자치령으로서 정치적 통합이 인정되었다. 처음에는 퀘벡주 · 온타리오주 · 노바스코샤주 · 뉴브런즈윅주 4개주만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후 매니토바주(1870) · 브리티시컬럼비아주(1871) · 프린스에드워드섬(1873)·앨버타주(1905) · 서스캐처원(1905) · 뉴펀들랜드주(1949)가 합쳐져 현재는 이상 10개주와 유콘·노스웨스트·누나부트 3개 준주(準州)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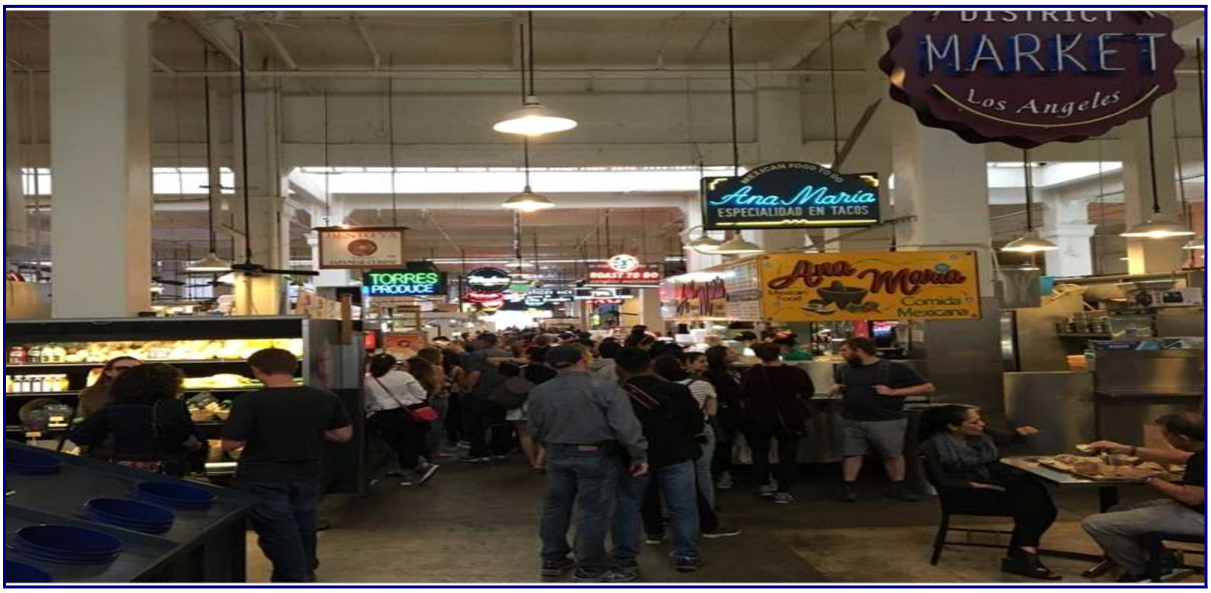
1926년의 영국제국회의는 캐나다 및 기타 자치령의 완전자치를 인정하였고, 1931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조례에 의하여 주권국가로서 영연방을 구성하는 것이 법제화되었다. 1949년에 캐나다 헌법인 ‘영국령북아메리카 조례’가 수정되어 캐나다의 완전독립이 법적으로 완성되었으며 1951년 12월 정식 국명을 캐나다자치령에서 캐나다로 변경하였다. 1982년 4월 17일 캐나다 최초의 헌법이 선포되었고 그 결과 영연방의 일원으로 존속하기는 하나 영국과의 법적 예속 관계는 종지부를 찍고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 주요 견학 내용

미 국

○ 로스앤젤러스 그랜드 센트럴 마켓

- LA 다운타운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는 100년 된 재랴시장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3가와 브로드웨이 코너의 '그랜드 센트럴 마켓'이다. LA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곳은 한국의 장터를 많이 빼닮았다. 시장 통의 맛집들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전 세계 곳곳의 별미를 맛보고 향신료 가게에는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시즈닝들이 가득하다.
- 그랜드 센트럴 마켓의 역사는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A 다운타운이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던 1917년에 개장했으니 딱 100년이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마켓이 있던 브로드웨이 길에는 밀리언달러 시어터 등 내로라하는 극장들이 줄지어 지어졌었다. 한동안 쇠락의 길을 걸으며 잊혀지기도 했던 그랜드센트럴마켓은 다운타운이 다시 주목 받으며 더불어 '핫 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몇 년전 대대적 리모델링을 거쳐 깔끔하게 변신했다. 또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테넌트도 보강했다.



○ 그랜드 캐년

-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은 1919년 2월 26일 의회법에 의해 탄생되었다. 1893년 채광, 벌목과 사냥을 계속 허락한다는 전제하에 숲을 보존하는 보호가 처음 시작되었다. 사냥감 보존에 대한 법이 1906년 강화되어 야생동물을 보호하게 되었으며, 1908년 국립 기념물을 다시 설계했다.
- 이 공원은 장관을 연출하는 그랜드 캐니언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 그랜드 캐니언은 구불구불한 형태에 깊이 1.5㎞, 길이 445.8㎞이다. 융기된 지각(해발 고도 2.5㎞) 위에서 600만 년 동안의 지질학적 활동과 콜로라도 강에 의한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공원은 강 북쪽의 노스 림(North Rim)과 강 양쪽의 사우스 림(South Rim) 두 지역으로 나뉘며, 보이는 협곡의 너비는 200m에서 30㎞이다.
- 계곡 내에 있는 둔덕, 소용돌이, 메사와 사원 들은 가장자리에서 내려다보면 사실상 산맥으로 보인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강물의 침식 작용이 계속되면서 긴 협곡과 그 지류를 따라 곳곳에 반들반들해진 바위로 인상적인 폭포와 급류를 만들어 낸다.
- 20억 년에 걸친 역동적인 지각 활동 결과, 계곡 안에 노출된 수평 단층은 선캄브리아대 초기와 말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 크게 4개의 지질 시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비슈누 편암(Vishnu Schist) 형태로 알려진 초기 선캄브리아시대 편암은 화석이 전혀 없다. 화석에 대한 증거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후기 선캄브리아대 베이스 석회석(Bass Limestone)으로, 초기 식물 형태가 남아 있다. 그다음의 단층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해양과 육지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이 땅 전체가 가라앉고 융기했을 당시의 먼 옛날 모습을 보여 준다. 중생대는 이 공원 안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초기 파충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취가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Navajo Indian reservation) 내의 동쪽에서 발견되었다. 이것들은 초기 신생대 포유동물의 몇 안 되는 화석 유물이다.

- 고도가 높은 지역은 사막으로부터 산악에 이르는 다양한 상태의 기후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협곡은 광대한 5개의 다른 동식물 지역이 펼쳐져 있는 생물학 박물관이다. 즉, 콜로라도의 푸른가문비나무(blue spruce)와 로키산단풍나무(Rocky Mountain maple)가 자라는 노스 림 고원의 허드슨 지역, 높이 2,500m로서 사시나무(aspen)와 폰데로사소나무(Ponderosa), 더글러스전나무(Douglas fir), 미국산전나무(white fir)가 자라는 노스 림 근방의 캐나다 지역, 고지 이행(移行) 지역의 폰데로사소나무(Pinus ponderosa)와 감벨참나무(gambel oak, Quercus gambelii)가 자라는 숲, 유타향나무(Utah juniper), 피논소나무(pinon pine), 세이지브러시(sagebrush)가 자라는 상부 소노란(Sonoran)과 사우스 림의 아래쪽, 사막선인장(desert cacti), 래빗브러시(rabbitbrush), 메스키트(mesquite), 모먼티(Morman tea)와 만자니타(Manzanita) 등이 자라는 협곡 아래와 맨 밑바닥에 해당하는 하부 소노란 등이다.
- 1,000종이 넘는 식물종이 공원 내에서 확인되어 왔다. 여기에는 팔머 앰소니아(Palmer amsonia), 골든위드(goldenweed), 플레인선인장(plains cactus), 스쿨러캐치플라이(scouler catchfly), 야생메밀(wild buckwheats), 큰앵초(primrose)와 클루트펜스테몬(clute penstemon)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15가지 식물이 멸종우려종을 위한 법률 하에 위협받는 종으로 고려하기 위해 추천되었다. 공원 내 11종의 식물들이 미국 법에 의해서 위기종으로 등록되었다.
- 절멸이 우려되는 동물군, 76종의 포유동물, 299종의 조류, 41종의 파충류와 양서류가 공원 내에서 확인되었고 약 16종의 어류가 콜로라도 강 본류와 지류에 서식하고 있다. 희귀종 또는 멸종우려종 조류들이 1973년 미국 위기종보호법(United States Endangered Species Act) 아래 등록되었다.
- 북아메리카 고대 문화(Archaic cultures, 최초로 인간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의 증거를 포함하는 이 공원은 2,600개 이상의 선사 시대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우스 림을 따라 코호니

나 인디언(Cohonina Indian)과 사우스 림과 노스 림과 계곡 내에 아나사지 인디언(Anasazi Indian)이 살았다. 이때 이 협곡 안으로 이주해 온 후알라파이(Hualapai)와 하바수파이(Havasupai) 인디언은 1860년 앵글로아메리칸이 도착하기 전까지 방해받지 않고 살았다. 남아있는 고고유적지들은 가혹한 기후와 물리적 환경에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보여 준다.

- 1919년 2월 26일 의회법으로 국립공원 탄생. 1893년 채광, 벌목, 사냥이 허락되면서 숲을 보전하는 보호가 처음 시작되었다. 1906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사냥감 보존이 강화됨. 1908년 국립기념물로 다시 설계. 1979년 10월 24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받아들여졌다.

○ 센트럴 파크

- 남북 길이 4.1㎞, 동서 길이 0.83㎞의 직사각형으로 면적은 3.41㎢이다. 뉴욕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공원이다. 1800년대 중반에 맨해튼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프랑스 파리의 불로뉴숲(Bois de Boulogne)이나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Hyde Park)처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550만 달러를 투입하여 1853년 공원 부지를 확보하였다.
- 1857년 현재보다 약간 작은 규모인 약 3.145㎢의 면적으로 개장하고 공원의 경관 설계를 공모하였으며, 1858년 조경가 프레더릭 로 옴스 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건축가 캘버트 복스(Calvert Vaux)가 공동 제안한 그린스워드 플랜(Greensward Plan)을 당선작으로 선정 하였다. 이후 설계안에 따라 경관을 조성하고 확장하여 1876년 현재의 공원 형태를 갖추었다. 1963년 미국 역사기념물(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된 데 이어 1966년에는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지정되었다.

• 공원 내에는 총면적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Jacqueline Kennedy Onassis Reservoir)와 할렘미르(Harlem Meer) 호수, 잔디광장인 그레이트론(Great Lawn)과 십메도(Sheep Meadow), 메트로폴리탄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벨베데레성(Belvedere Castle), 프랑스식·영국식·이탈리아식의 세 가지 정원 양식으로 조성된 컨서버토리 가든(Conservatory Garden), 베데스다 분수(Bethesda Fountain), 센트럴 파크 동물원(Central Park Zoo), 가수 존 레넌(John Lennon)을 기념하는 스트로베리 필즈(Strawberry Fields), 야외 원형극장인 델라코트 극장(Delacorte Theater) 등의 명소가 있다. 이밖에 광대한 숲과 산책로, 2개의 아이스링크, 핸드볼·테니스·농구 코트 등의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 세계적 관광명소이기도 하여 연간 약 400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중 무휴로 개방하되, 매일 오전 1시에서 6시까지 5시간은 출입을 금지한다. 비영리단체인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Central Park Conservancy)에서 관할한다.

○ 뉴욕 타임스퀘어

•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는 미국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있는 유명한 상업적 교차로로, 웨스트 42번가와 웨스트 7번가가 합쳐져 만난 세븐스 에비뉴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일대를 말한다. 타임 스퀘어는 브로드웨이의 극장가가 환하게 빛나는 중심지이고,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보행자용 교차로 중 한 곳이며,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 로 "세계의 교차로" "우주의 중심" "불야성의 거리" 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Travel + Leisure의 2011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명소로, 타임 스퀘어는 매년 3,9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한다. 타임 스퀘어는 매일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대부분 관광객이거나 뉴욕 지역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다.

- 예전에는 롱에이커 스퀘어(Longacre Square)였던 장소였는데, 1904년 4월《뉴욕 타임스》의 본사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타임 스퀘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때 이후로 건물 주소를 따라서 원 타임스 스퀘어라고 불리는 뉴욕 타임스의 사옥은, 새해가 될때마다 볼 드랍 행사가 열린다.
- 19세기 말 타임스 스퀘어는 말 거래업자, 마굿간, 마차 등으로 붐비던 곳이었는데, 1899년 오스카 헤머슈타인이 이곳에 최초로 극장을 세우면서 브로드웨이공연문화가 시작되었다. 타임스 스퀘어와 인근 지역은 공연장, 극장, 상점, 뉴스 가판대, 술집, 음식점 등이 집중되어 미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분주적인 번화가가 되었다. 타임스 스퀘어가 지금에 모습을 갖추기 이전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범죄 소굴이었으며, 성인영화관, 성인용품 상점, 스트립스 공연장이 즐비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뉴욕주와 시 당국은 재개발을 추진하였고, 오늘날 같이 많은 새로운 공연장, 호텔, 음식점, 대규모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재정비되었다.
- 뉴욕 주와 정부는 타임스 스퀘어 재개발 계획은 1982년에 처음으로 수립이 되었다. 극장밀집지역을 제외하고 평지처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4개의 초고층건물, 대형시장, 호텔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1993년 재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1995년에 1,140만 달러를 투입해 청소년용 전용극장인 뉴 빅토리 극장이 개장했다. 이 청소년 극장이 개장함으로써 150개 이상인 성인용품 가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다.
- 타임스 스퀘어 재개발 계획은 건축가 로버트 스턴, 청소년 극장의 소유주인 월트 디즈니사 (社)에 공이 컸다. 이로 인해 디즈니를 필두로 건전한 업체의 입주가 쇄도하는 결과를 보였다

○ 그라운드 제로

- 미국 뉴욕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곳을 꼽으라면 911 테러가 있었던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993년에 발생했던 테러이지만 아직도 그곳에선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당시 희생된 희생자들을 기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대한 공원과 인조폭포를 만들어 관리하는 미국 당시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사각 구조물 외관엔 검은 동판으로 30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귀한 삶!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이 보이는 듯 합니다.

캐 나 다

○ 나이아가라 폭포

- 5대호 중에서 이리호(湖)와 온타리오호로 통하는 나이아가라강에 있다. 폭포는 하중도(河中島)인 고트섬(미국령) 때문에 크게 두 줄기로 갈린다. 고트섬과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의 사이에 있는 폭포는 호스슈(말발굽) 폭포, 또는캐나다 폭포라고도 하며 높이 약 53m, 너비 약 790m에 이르는 것으로, 중앙을 국경선이 통과하고 있다. 고트섬 북동쪽의 미국 폭포는 높이 약 25m, 너비 320m에 이른다. 나이아가라 강물의 94%는 호스슈 폭포로 흘러내린다.
- 나이아가라 폭포는 나이아가라케스타에 걸려 있으며, 예로부터 인디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으나 백인에게 발견된 것은 1678년 프랑스의 선교사 헤네핑에 의해서였다. 신대륙의 대자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선전되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때 세계 제1의 폭포라고 하였으나, 그후 이구아수폭포와 빅토리아 폭포가 세상에 알려져 현재는 북아메리카 제1의 폭포로 일컬어지고 있다.
- 폭포가 걸려 있는 케스타 벼랑은 상부가 굳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부는 비교적 연한 이판암(泥板岩)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포의 물이 떨어질 때 벼랑 하부의 연층을 후벼내듯이 침식하기 때문에, 돌출한 듯 남아있는 상부의 석회층도 허물어져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벼랑은 해마다 0.7~71.1m 정도 후퇴하고 있었는데, 이후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량을 조절하자 벼랑의 붕괴가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폭포의 수명이 길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 폭포의 주변은 경치가 아름다워 공원화되어 있으며, 교통과 관광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고 있다. 양쪽에는 나이아가라폴스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2개 도

시가 마주 대하고 있다. 이 폭포에 관한 자료는 나이아가라박물관에 보존 ·전시되어 있다.

○ 더 디스틸러리

• 캐나다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스트리트. 비어 있던 양조장 부지 전체를 사들여 재활용하여 갤러리, 오픈카페, 공연장, 아트샵, 브랜드 샵 등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곳인데, 내부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도 독특하고 그곳의 역사와 함께 멋진 거리로 바뀌어각종 행사들 활발히 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지금은 토론토의명소로 자리하고 있는 곳.

○ 성 요셉성당

• 캐나다의 수호성인인 요셉을 모신 성당으로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순례지로 유명하다. 처음에는 1000여 명을 수용할 정도 규모의 예배당이었지만 1924년 다른 예배당이 건축되면서 1967년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프랑스계 가톨릭에는 기적을 신봉하는 경향이 강하다. 성요셉성당 또한 기적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성당을 세운 앙드레 수도사는 불치병을 고치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녔던 인물로 '몽루아얄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불렸다. 성당 입구에 쌓여있는 목발들이 바로 그가 병을 고친 사람들의 것이라고 전해진다.

- 이는 기적을 증명하는 증거물로 전시되고 있다. 병설되어 있는 박물관에는 앙드레 수도사의 심장이 전시되어 있으며 앙드레 수도사가 살았던 지하의 침실이나 부속 예배실은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다. 성요셉 성당은 몽 루아얄(Mount Royal)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돔의 높이가 97m에 이르는데, 이는 로마에 있는 성피터 성당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몬트리올의 남서부 어디에서나 이 성당의 돔을 볼 수 있다.

○ 토론토 신청사

- 1965년부터 토론토시의 네 번째 시청 건물로 사용된 현재의 건물은 토론토가 21세기로 한발 일찍 내딛은 듯한 인상을 줄 만큼 미래의 건물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토론토 번화가의 중심에 동쪽으로는 베이 스트리트(Bay Street)를, 서쪽으로는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를, 그리고 남쪽으로는 퀸 스트리트 웨스트(Queen Street West)를 경계로 한 넓은 네이탄 필립스 광장(Nathan Philips Square)의 한 구석에 자리한 이 건물군은 멀리서도 그 특징 있는 구조가 눈에 띈다.

- 1958년, 당시 토론토 시장이었던 필립스 시장은 토론토시가 최초로 개최한 대규모 국제 건축 공모에 응모한 520건의 설계 가운데 핀란드 출신의 건축가 레벨(Viljo Revell, 1910~1964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공포하였다. 1961년부터 4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1965년 9월 13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으나 건축가 자신은 아깝게도 완공 10개월 전에 타계하였다. 건물 로비의 커다란 기둥 하나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이 건물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도록 하였다. 현재 이 건물은 토론토의 시청, 시의회실(市議會室)로서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관광 명소로 자리할 만큼 유명해졌다.

- 전체 구조는 넓은 열주식(列柱式) '기단(基壇)' 위에 두 개의 호형(弧形) 고층 건물이 마주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 원형 돔이 놓여진 특이한 배합을 보인다. 기단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의 내부가 시민들이 들

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기단의 한 쪽 끝은 램프를 형성하여 광장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그 옆으로는 계단도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조각적(彫刻的)’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위에서 보면 돔은 눈동자를, 호형 건물들은 아래위의 눈꺼풀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돔 구조 안의 시의회실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절하게, 시의 눈동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형 고층 건물들의 높이는 왼쪽이 20층, 오른쪽이 27층으로 비대칭(非對稱)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Ⅳ 연수 결과

○ 미국, 캐나다 양국 모두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의 관광대국의 위치는 단순히 관광자원을 보유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얻은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미국의 문화·관광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인종들이 미국안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켜나가기고 하고 때로는 섞이기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미국만의 매력을 발산한다.

○ 또 미국에는 해안가, 사막, 빙하, 산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자국 내에 존재한다. 미국의 캠핑카 문화가 발달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라고 본다.

○ 미국은 이러한 다양한 자원의 보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예를 들어 나이아가라 폭포의 경우 미국, 캐나다 양국에서 구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캐나다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는 것이 미국 쪽에서 구경하는 것보다 전망이 좋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바람의 계곡’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였다.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에 굴을 뚫어 관광객들이 폭포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관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바람의 계곡'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캐나다에서 구경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우리 순천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순천도 바다와 산이 있으며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동천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있다. 또 팔마비와 팔마탑,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라는 옛 문화재들이 존재한다.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유입 될 만한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 캐나다의 경우 옛 건물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돋보였다. '성요셉성당' 등 오래된 건축물에 그 의미를 더하여 관광자원화 하였으며, '더 디스틸러리'처럼 사용하지 않는 부지 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람들이 다시 찾게끔 하였다.

○ 또 토론토 신청사를 지으면서 기존의 구청사를 헐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 신청사를 지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상적이고 의미있는 시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공모(520건)를 통해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

○ 현재 순천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도시재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건물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여 사람들이 찾게끔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옛것과 새로움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캐나다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새로운 시청사건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토론토 시청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토론토 시청은 시청 앞에 광장을 조성하여 자유롭게 드나들게끔 함으로써 시민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신청사를 건립할

때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 고유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뿐만이 아니라 순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미국과 캐나다의 신구가 적절히 조화되고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유지한 관광지 및 상품들을 살펴보면서 "문화가 곧 행복이고 국력"인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은 지방적인 것이고, 가장 지역적이고 토속적인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우리다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두 국가이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유기적인 보완이야말로 관광자원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끝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배우고, 느낀 다양한 견문과 사례 등을 향후 우리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자료

제출자 : 순천시의회 의장 임종기

방문국(지역, 시설)	소감 또는 느낀 점(제안사항)	비 고
미국(오트맨)	•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작은 광산마을 오트맨 금광촌이다. 20세기 초반에는 금이 발견되어 골드러시로 번성을 이루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만들어진 광산, 선술집, 우체국 등 그 당시의 건축물들이 남아있다. • 버려진 금광을 이색적인 테마 여행지로 개발한 것이 인상깊었으며, 순천에서 버려졌거나 또는 관심을 주지못했던 옛 문화재, 볼거리 등이 있는지 살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자료

제출자 : 순천시의회 장지만

방문국(지역, 시설)	소감 또는 느낀 점(제안사항)	비 고
미국(뉴욕시청)	• 뉴욕 시청은 1802년 디자인 경쟁에서 선정된 존 맥콤 주니어(John McComb, Jr.), 조셉 프랑스와 만진(Joseph Francois Mangin)이 건설하였으며, 1803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811년 완공되었으며 1812년 공식 개관되었다고 한다. • 현재 순천시는 청사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뉴욕시청처럼 200년 이상 사용될 수 있고 그 지역, 그 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설계와 준비가 필요 할 것 같다.	